

# 국가철도공단, 법무행정체계 전면 개편 나섰다

**국정과제 '공정한 법집행'·공단 '혁신·책임경영 실현' 달성 변화 단행  
법무 인프라 전면 재정비·내부 리스크 사전 예방 등 6개 주요과제 추진**

국가철도공단 재무법무처가 올해부터 법무행정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법집행'과 공단 전략목표인 '혁신·책임경영 실현'을 달성하고자 변화를 단행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법무행정체계 개선의 6가지 주요과제는 법무 인프라 전면 재정비, 내부 리스크 사전 예방, 법무행정 투명성 제고, 법무IT시스템 고도화, 경영리스크 전략적 대응,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공단은 법무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익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 조치로, 공

정성을 높이고 예산 방안 가능성을 통제했다. 또 법률고문 평가 비중을 조정해 업무 적합성을 제고하고 강제집행절차 관련 기준을 마련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했다.

이와 함께 도입 5년을 맞은 중재제도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와 행정력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과 관련, 분쟁상대방과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 등이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단은 내부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자 내부통제, 자율준수프로그램 등 신규 업무를 법무업무에 도입했다.

내부통제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으로, 부정부패와 업무

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자체 운영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국정과제와 CEO 경영방침 달성에 주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법률고문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법무행정 투명성 제고다. 사건 발생 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법률고문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신입 법률고문 선정 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하고, 선정 후에는 찾아가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투명성과 업무 이해도를 제고했다. 분쟁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명경쟁 방식을 도입해 업무의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향후 소송

과 중재분야에서 승소를 증가가 기대된다.

네 번째로 법무IT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사용자인 직원의 의견을 청취해 27개의 VOC를 수집하고 개선에 나섰다. 현재 19개의 과제를 마쳤다. 개선을 완료하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내년에는 AI 및 챗GPT 반영도 모색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분쟁 리스크에 전략적·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공단은 유사분쟁 발생을 줄이고자 자문·소송 결과에 대한 보고·공유체계를 신설했다. 승·패소 사례 보고는 연 1회에서 분기별 보고로 강화하고, 찾아가는 법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또 직원 VOC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법률동향 세미나·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 시 리스크 대응 TF팀을 운영해 사안에 대응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은 악성민원 발생 시 법률고문 협의를 통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전세사기 등 개인적 문제를 상대적 저비용에 상담해주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공단은 올해 대대적인 법무업무 인프라 재정비에 열중했다. 본격적으로 개편을 마친 내년에는 내부통제 체계, 중재제도 개선계획 등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배가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 관계부처 등과 소통 채널을 강화해 최신 법무정보를 입수하고자 한다. 리스크는 선제 해소하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시 관계부처, 법률대리인 등으로 TF를 구성해 승소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전사적으로 전파해 체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법무업무는 임직원에게 고품질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언함과 공단 주장을 분쟁 상대방에 합리적으로 관철시키는 강령이 요구되는 업무"라며 "올해 다방면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내년 업무에 잘 반영하고 재무법무처가 공단의 업무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



대전신세계 '매지컬 윈터 판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30일 대전신세계 Art & Science가 '매지컬 윈터 판타지'를 주제로 대형 트리,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사진=대전신세계 Art & Science 제공)

## 대전지역 유통가, 마지막 겨울 정기세일... 할인 이벤트 총공세

대전지역 유통업체가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을 펼친다.

먼저 갤러리아타임월드 1층 바이레도에서 세트 기획전을 열고 일정 금액 구매 시 바디워시, 핸드크림을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3중 샘플박스를 증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롯데백화점에서는 홀리데이 세트 포함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체리블라썸 오너먼트, 롯데백화점 베스트셀러 키트를 증정한다.

CK언더웨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금액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마틴골프에서는 이월 상품전이 열려 최대 40~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K2에서는 이월 다운 재킷 30~50% 할인혜택과 금액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겨울 정기 세일 마지막 주말을 맞아 다양한 주말

할인 기회를 제공한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는 '골프웨어 겨울 아우터 상품전' 행사를 진행한다. 티셔츠, 바지, 점퍼 등 다양한 이월 상품을 블랙엔화이트 50~70%, LPGA골프 50~80%, 레노마골프 50~60% 등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송년감사 대축제' 행사를 열고 TV, 냉장고를 제품별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썬리침대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침대 및 매트리스를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는 당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크리스마스 럭키 톨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향수 기프트 세트와 코스메틱 세트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 워크'가 1층 본매장에서

진행된다. 펜할리곤스, 아쿠아디파르마, 산타마리아 노벨라, 맥 브랜드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또한 피네, 몽슈슈, 겐츠베이커리, 베키아에누보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1층 이벤트 플라자에서 오는 신원 그룹 대전이 펼쳐진다. 지이크, 파렌하이트, 마크앤, Si, 비키가 참여하는 이번 대전에서는 각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연말을 맞아 슈즈 특가 상품전도 진행됐다. 탠디, 소다, 톰맥캔에서 선보이는 인기아이템 특가부터 금액할인 혜택까지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아디다스팩토리과 ABC마트 각 층 본매장에서 겨울 스포츠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 중진공 대전본부, 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 1차 모집은 일반 바우처,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기업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85%를 정 부 보조금으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지원대상을 매출액 1500억 이하 중기

업까지 확대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를 신설, 위험성 평가 등 컨설팅 및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중진공 대전지역본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 제3회 산림기술인의 날 개최

### 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회가 '2023년 제3회 산림기술인의 날'을 개최했다.

30일 산림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산림기술인회 주최·주관, 산림청 후원으로 전국 산림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단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병천 회장과 송승의 제1 수석부회장, 분회장, 시·도지회장, 자문위원, 임·직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인사말, 우수 산림기술인 포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우수 산림기술인 포상은 산림기술 발전에 기여한 산림기술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상과 한국산림기술인회장상 등 총 2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했다.

산림청장상은 도담조경주식회사 조용우 대표, 굴봉산임업 강문석 대표이사, 주식회사 낭 남인석 부장, 산림기술연구원 윤상호 연구원 등 총 4명이 수상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장상은 유소희 대리, 임지택 사원, 백지는 사원, 김유진 사원, 박혜인 연구원 등 총 5명에게 돌아갔다.

정 회장은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한 현실에서 산림기술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만큼 산림기술 산업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ycn.net

## '커리어체크' 서비스 론칭

### 잡코리아

잡코리아는 유저 간 커리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 '커리어 체크'를 론칭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의 커리어 목표 설정을 돕는 자사 데이터 기반 'AI 가이드'도 제공한다.

커리어 공유 및 평가 등 전체 서비스는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어 편의성을 더했다. 구직자는 구직 환경에 따라 스펙 스캐러리어 △이직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커리어 고민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커리어 등록 시 2500만 잡코리아 구직 회원의 평가 의견과 고민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AI 가이드는 개별 직무와 연차에 따른 커리어 전략을 예상해 보여준다. 가장 많이 보유한 '자격증'이나 이력서에 자주 등장하는 '스킬, 역량' 등을 순위표로 제공하고, '연차별 평균 연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배 기자 yk2425@dailycn.net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파울 주한페루대사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 한-페루 수교 60주년, 철도협력 확대 논의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주한페루대사 면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주한페루대사를 만나 양국 철도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르도 주한페루대사는 페루투자청 국장과 함께 수도권본부를 방문했다.

대사 일행은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과 합동설계사무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면담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페루 리마 메트로 3, 4호선 사업총괄관리(PMO)

수주를 위해 페루 정부와 발주처를 대상으로 K-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활용해 잉카 유적지인 쿠스코와 친체로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의 타당성조사 및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철도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돼 우리 기업들이 페루 철도 인프라 구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

## 한국타이어-KB손해보험,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맞손'

한국타이어가 KB손해보험과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타이어는 KB손해보험과 지난 29일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고객 경험 기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상품을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에 나선다.

KB손해보험은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

스테이션 회원만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양사는 향후 비즈니스 협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추진,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한국사업본부장은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최상위 타이어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KB손해보험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 코레일 충북지역관리단,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코레일 충북지역관리단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진성 충북지역관리단장은 "생활에 편리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챌린지 다음 주자로 권동현 세명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